

금남로 사진관

“옛집은 사라져도 추억은 남았으면...”



높다랗게 솟은 고층 아파트 아래에 철거 중인 주택들이 위태롭게 서 있다. 무너져내린 집 주변에는 살던 이가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즐비하고 빈 집에서는 길고양이들이 주인 행세하며 들어앉아 울어대고 있다. 철거공사가 한창인 광주 동구 학동의 재개발 현장이다. 학동은 조선시대 '홍림리'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광주의 원도심이다. 유서 깊은 이마음도 개발의 골레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재개발,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의 이름으로 광주의 원도심이라 일컬어지는 지역 곳곳에서 오래된 집들이 사라지고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저마다 광주의 랜드마크라고 자부하며 아파트를 올리지만 그 아파트가 무엇 때문에 광주를 대표하는지 모호한 게 대부분인 상황. 기자가 기억하는 옛 학동의 모습처럼 원도심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이 사라진 동네의 추억을 품은 삶의 공간으로 조성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바른씨푸드, 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



수산물기업 '바른씨푸드'는 지난 2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신안군장학재단에 장학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에스케이물산, 영광군에 붙이는 체온계 1만장 기탁



에스케이물산은 최근 영광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붙이는 체온계' 1만장(500만원 상당)을 영광군에 기탁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조선대, 삼성꿈장학재단 '배움터 교육지원사업' 5년 연속 선정



조선대학교가 삼성꿈장학재단이 지원하는 '2021 배움터 교육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됐다. <사진> 3일 조선대에 따르면 최근 박영신 사법대학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가 총괄 운영하는 '배움터 교육복지사업'이 2017년 최초 선정된 이래 5년 연속 운영하게 됐다. 이 사업은 광주전남지역의 사회 경제적 교육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질의 과학 IT 수업을 제공

하는 지원사업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광주·전남지역의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마술 등 실생활 연계 과학수업 ▲드론 및 아두이노를 통한 ICT 교육 ▲해양, 기상, 및 원자력 관련 글로벌 이슈를 통한 민주시민 소양 양성 등 폭넓은 주제의 탐구 및 현장기관 탐방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1분기 정기이사회 개최

여성 농업인으로 구성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회장 장세득·사진)가 최근 1분기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농협 광주 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 이사 1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2020년 사업결산보고와 2021년 주요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또 농업·농촌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문화 가족 및 소외계층 지원, 영농폐기물 수거와 미세먼지 예방 등에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13개 분회로 구성된 광주시연합회에서는 600여 명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



고삼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 동국대 석좌교수 임용

고삼석(53)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1일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임용됐다. 동신고를 졸업하고 2010년 중앙대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고 전 상임위원은 올해 1학기부터 동국대에서 미디어와 정보통신 분야 연구와 강의를 할 예정이다. 고 전 상임위원은 지난 1996년부터 국회와 청와대, 방통위에서 일하면서 미디어와 정보통신 분야 정책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정부직으로는 최장수인 5년5개월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있



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에 조언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디지털 미디어 디바이드: 참여와 통합의 디지털 미디어 정책' (나남, 2011)과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 (메디치, 2019) 등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TV프로그램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밥이 되어라(재)	35 불새 2020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순현주의 간이역 스페셜	10 SBS 뉴스 30 열린TV 시청자 세상
[11]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 55 UHD 스포터	00 안녕? 나야(재)		30 고양이 보인다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뽀보 친구친구 스페셜	00 SBS 12뉴스 20 민방 네트워크 뉴스 40 펜트하우스 2(재)
[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한국의 인류유산(재) 55 불면해도 괜찮아(재)		20 푸리가 식사교실(재) 50 2시 뉴스 외전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명탐정 핑크퐁과 호기 45 콩순이의 울돌곶길 5			00 뉴스브리핑
[3]	00 팍 잡아 30 트레이닝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자등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	
[4]	00 사사건건	00 누가 누가 잘하나	00 기분 좋은 날(재)	00 박미선과 돈워리 돈해피(재)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또봇 V 2 15 캐치! 티니핑 30 농친 예능 따라잡기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당신이 속하는 사이(재)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0매 전라도	50 닥터 365 55 전국 TOP 10 가요쇼(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한국인의 밥상	50 미스 몬테크리스토	05 생방송 연속복권 720+ 10 밥이 되어라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누가 뭐래도	30 UHD 환경스페셜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안녕? 나야!	20 쓰리박 스페셜	00 맛남의 광장
[10]	00 다크 인사이트 50 더 라이브	40 수미산장		25 펜트하우스 2(재)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포츠 하이лай트	00 광주MBC 다크플렉스 친애하는 나의 도시	45 제시의 쇼터뷰
[12]	10 이슈 픽 쌤과 함께(재)	15 통합뉴스룸 ET(재) 45 사랑의 가족(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15 나이트라인 45 닥터 365 50 남도의 보물 100선

EBS1

06:00 한국기행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형사가제트
06: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정오뉴스	17:45 최고다! 호기심 딱지
07:00 띠띠뽀 띠띠뽀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7:15 로보가 폴리	12:25 지식채널e	19:00 볼트론: 전설의 수호자
07:30 뽀롱뽀롱 뽀로로	12:30 클래스 e	19:30 자이언트 팽TV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명의	19:45 다크 잇!
08:00 당동당 유치원	13:55 EBS 스페이스 공감	20:35 아주 각별한 기행
08:30 우당탕탕 은하안전단	14:45 도라도라 영어나라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8:45 워든지 뮤직박스	15:15 도전! 나도 과학자	<남만 찾아 남미 여행
09:00 꼬미와 베베	15:45 레인보우 루비	-알티플라노 고원의 연가, 불리비아>
09:15 또깨비 가족	16:00 방귀대장 뽕뽕이(재)	21:30 한국기행
09:30 물랑	16: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시골 로망스 4부 맛있는 산골>
09:40 우리집 유치원	16:30 당동당 유치원(재)	21:50 파란만장
10:30 한국기행(재)	16:50 해오와 해오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4일(음 1월 21일辛亥) ☎ 010-9790-8237

36년생 불평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개운하게 뜯어 고쳐야 후회가 없을 것이다. 48년생 겸손함과 겸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0년생 편리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72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정진하면 기쁨이 이루어진다. 84년생 가락을 잘 추스르는 것이 중요하다. 96년생 자생력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세이다. 행운의 숫자 : 07, 74

37년생 끈질긴 노력이 수반 되어야 하는 단계이다. 49년생 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다. 61년생 단순하게 판단한다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73년생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으니 수용하는 것이 옳다. 85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97년생 확실한 절제와 과단성 있는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7, 98

38년생 빈틈을 보인다면 어느 한 순간에 기괴한 일을 당할 수도 있었다. 50년생 정확히 일치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놀랄 것이다. 62년생 유대 관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74년생 과욕은 훗날의 아픔을 예고하는 진원지가 된다. 86년생 미련을 버렸을 때 새로운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98년생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얻는 바가 많으리라. 행운의 숫자 : 65, 94

39년생 일관되게 진행되어야 큰 효과를 본다. 51년생 공들여 왔던 바가 다방면으로 진척을 보인다. 63년생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이다. 75년생 가급적 보류하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87년생 지리멸렬함을 지나 성취의 장에 이르게 된다. 99년생 마지않아 진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4, 77

40년생 급박하게 돌아갈 것이니 민첩해야겠다. 52년생 대세가 기울었으니 집착을 버리는 것이 옳다. 64년생 사려 깊은 선택과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76년생 비뚤을 때 더 많이 채워지는 법이다. 88년생 아무리 좋더라도 지나치다 보면 분명히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00년생 길사로 연결되는 행운이 강하게 밀려오고 있다. 행운의 숫자 : 10, 78

41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53년생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 65년생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77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89년생 고뇌는 삶을 승화시키기에 충분하다. 01년생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11, 58

42년생 허황된 것에 눈이 어두워질 수 있음을 알아. 54년생 예정대로만 해 나간다면 이상이 없겠다. 66년생 주의하지 않는다면 역을 올릴 수도 있으니. 78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90년생 밟았던 바에 하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02년생 본디의 것과 거의 비슷한 형태를 이루리라. 행운의 숫자 : 34, 61

43년생 총체적인 점검과 사후 대처가 절실한 도량이다. 55년생 값어치를 따져서 판단할 일이다. 67년생 실행 하더라도 정밀하지 않으면 무가치하다. 79년생 체계를 인식하고 기본에 충실해야 무탈하다. 91년생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니 기대해 볼 만하다. 03년생 소탐대실할 수도 있으니 판단을 잘 하라. 행운의 숫자 : 45, 80

32년생 따르더라도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44년생 뜻을 알아주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탄스러울 뿐이다. 56년생 솔직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8년생 반추해 본다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80년생 먼저 파악하고 있어 야 유리하다. 92년생 중간 점검이 절실히 요청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03, 63

33년생 깔끔한 외관 속에 맹점이 숨어 있다. 45년생 전체적인 흐름을 잃을 줄 아는 해안이 절실히 필요한 국량이다. 57년생 가급적이면 상대를 존중해 주는 것이 낫다. 69년생 진퇴를 분명히 해야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 81년생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근원적인 것이 랜잡은 편이다. 93년생 안에서는 조용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시끄러워진다. 행운의 숫자 : 29, 89

34년생 금권에 휘둘리게 될 수다. 46년생 기회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느니라. 58년생 쓸모없다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이름다. 70년생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82년생 재수불공을 올린다면 마지않은 장래에 분명한 효과를 보게 될 것이다. 94년생 시작이 반이니 우선 착수해 두고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5, 53

35년생 길경이 넘칠 수니 좋아서 환호성을 지르겠다. 47년생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59년생 태산처럼 미동도 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야만 한다. 71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 여겨도 된다. 83년생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취약점이 보인다. 95년생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억지로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다. 행운의 숫자 : 43, 51